§§

國內 情報

O 대북한 비료지원 국민 모금운동 현황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모금을 시작한지 한달 여 이상이 지났으나 국민의 호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2일까지 현대 10억원, 한국전력 7억 8천여만원, 남해화학 1억원, 동부한농화학 3천만원, 녹십자 5천만원, 한국방송공사(KBS) 모금운동 9천900여만원, 문화방송(MBC) 2억6천900여만원 등 23억 3천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비료 5만톤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1백80억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액수의 금액이 모금된 것이다.

이 같은 모금 부진은 경제난과 대북비료지원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북한의 남북관계개선 외면, 한국적십자사의 홍보부족 등의 복합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KBS, 21일에는 MBC가 특집생방송을 통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모금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정부와 한국적십자사는 정부지원분과 한적모금분을 합쳐 당초 1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려했으나 목표를 바꿔 정부지원분 5만톤 외의 추가분은 모금실적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 인격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다.

< 아놀드 그라소우 >